

대학 장학금 바로 받자

유양무 | 서울지역대학교 장학협의회 회장



대학 장학 업무 부서에서 일하게 된 이후부터, 매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인 2월 그리고 8월 즈음에 겪게 되는 현상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장학금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현상이다. 아니, 학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형, 누나, 동생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전화를 한다. 이 시기에는 장학 부서에 모든 인원이 장학금 상담에 몰두한다. 업무 종료시간을 초과한 늦은 시간까지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작업에 투입되지만 장학금에 관한 문의전화가 오면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아직 작업 중입니다" 뿐이며 그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장학금 지급과정이 학생들을 접수 매겨 줄 세워 놓고 정해놓은 장학금 액수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라면 애초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의 대다수 대학의 등록금은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성장했으

며, 이는 '소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낸다'라는 옛말이 무성하게 들리다 못해 요즘은 소 값으로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기에도 벽찬 실정이다. 이렇듯 대학 등록금은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휴학을 결정하거나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기 중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일이 생기며 이는 사회적으로 교육의 기회 박탈과 사회적 계층의 양분화라는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을 야기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의 기회 박탈과 대학 내 사회적 계층의 양분화는 대학교 등록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가 '장학금'인 것이다. 장학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은 교내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액의 확충과 수혜 대상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학생 및 부모의 등록금 마련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 증진과 연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장학금액의 확충과 수혜 대상의 범위 확대는 대학

내의 주요 발전 요인 중 하나로서 학생 개인은 물론 대학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도입과 근래 몇 년간 대학의 장학금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을 위시한 국가기관과 대학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현 장학제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현 장학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만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흔히 생각하는 '공부 열심히 하면 받는 장학금'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기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개편된 현 장학체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종류의 대학 장학금

(1) 국가장학금

앞서 말했듯 최근 몇 년간 장학 시스템의 변화로 그 수혜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그만큼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고 수혜 대상의 범위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곧 장학금액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전의 장학 체계와 현 장학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차이점은 바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2012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13년에는 지원 금액이 확충되었다.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수혜 받는 현 국가장학금 체계를 간략하게 세분화하면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장학금인 ‘국가 장학금 I 유형’은 장학금 전액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신입생 같은 경우엔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수혜조건이다. 이와 같은 장학금 수혜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학생들의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 지급된다. 소득분위는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으며 소득분위가(소년·소녀가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가 0분위에 해당한다) 낮으면 낮을수록 장학 금액은 늘어나며 연간 9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I 유형은 소득분위가 동일한 학생이라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같은 금액을 지원 받는다.

반면, ‘국가 장학금 II 유형’은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수혜자격과 전액 국고로 지급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두 가지 국가장학금의 차이점은 바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마다 장학금액을 배정하면, 그 장학금을 학교 측에서 배분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즉,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주체가 대학이다. 따라서 소득분위가 동일한 학생이라도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따라 받게 되는 액수가 상이하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액을 배정할 때, 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금액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대학자체노력¹⁾을 고려해서 금액을 배정한다. 배정된 금액으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기준은 각 학교마다 다르며 주로 성적과 가계곤란도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등록금액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액도 달라지니, 등록금 금액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가 나가기 전까지 계속된다. 그 처리과정이 매우 유기적이며 그 가운데 장학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하다.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장학금’이란 I 유형과 II 유형을 말하며 소득분위 즉, 가계곤란도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장

¹⁾ 대학자체노력이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래 몇 년간 대학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데이터이며, 2013년부터는 (등록금인하규모 * 조정계수) + (장학금증가분 * 장학금 지급률지수)를 계산해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II 유형 대학 배정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즉, 그 동안의 노력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학이 받는 II 유형 금액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학금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가계 곤란도를 고려한 장학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장학금이 여럿 있으며 신입생 같은 경우엔 ‘대통령 과학 장학생’ (단,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한정)이 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물론이며 학기당 200만원의 학업 장려금과 해외장학생을 위한 실비 지원 등 다수의 혜택을 지원한다.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학업에 매진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대통령 드림 장학금도 있으며 전국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학과에 진학하는 우수 신입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도 존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내 사무 부처와 외부 산업체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도와 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근로 장학생’으로서 교내·외에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으로 근무를 하며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 역시 국고에서 임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장학금으로서 학생들의 학업유지에 필요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 교내·외 장학금

국가장학금 제도가 자리 잡기 전에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과 가계 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즉, 교내장학금을 받는 것과 기업이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교외 장학금을 받는 방법이 있었으

며 이 장학금들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교내 장학금의 경우 각 학교별로 종류, 금액, 지원대상 등이 매우 다르다. 많은 교내 장학금 중 성적우수 장학금의 규모가 가장 크며 처리과정도 복잡하다. 교내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이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봉사활동내역, 어학성적 등 학교, 학과별로 그 조건은 다르다. 지급 금액의 경우 국가 장학금이 감면된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교외 장학금이란 외부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말한다. 외부 장학금은 장학생과 장학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학교가 아닌 외부장학재단에서 처리된다. 따라서 장학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재단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일,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하는 일, 학생들과 외부 재단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외부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외부재단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 학생을 추천한다. 이후 장학재단 별로 심사를 통하여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국가장학금 제도 위주로 개편된 장학시스템은 기존의 교내 장학금 위주의 장학금 체계와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학업 성

적이 우수할 때만 장학금을 받는다는 기존의 통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중 많은 부분을 장학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과 그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장학금 처리 과정에서 많은 보탬이 된다. 특히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배정금액은 학교마다 액수, 지급되는 소득분위도 다르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매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학교의 다양한 교내 장학금에 대하여 대담하고, 전년도 장학사업 결과를 보고하며 자유토론을 통해 국가장학제도의 문제점을 다각으로 검토하는 등 장학금 자체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수월한 장학업무 처리를 위해 각 학교 전산원에서 지원하는 장학업무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나눈다. 학교 내에서 장학담당자가 처리하는 이 모든 장학금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서울지역대학교 장학협의회'이다.

글을 마치면서

지난 몇 년간 장학부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감사하다'라는 한마디이다. 평소에 일이 지치고 고되어도 고맙다는 학생의 말 한마디는 나를 포함한 장학 부서에 있는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끔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

서울지역대학교 장학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함으로써 느끼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학 제도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장학 제도의 발전이 사회 불균형과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의 재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필자소개

유양무

현재 서울지역대학교 장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학생처 학생지원팀에 재직하고 있다.